

경제학과 불교는 삶의 양 바퀴와 같은 것

앞바퀴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확해야

불교는 인간을 감싸 안는 부드러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에 반해 경제학의 이미지는 차갑다. 현대 경제학이 말하는 '경쟁'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르면 인간을 욕망 달성을 좇아 질주하는 기계와 같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이 글을 연재 하면서 접한 여러 불교관련 책에는 '경제성장을 만능으로 하는 경제학은 안 된다' '욕망 추구를 찬미하는 현대경제학의 흐름이 문제다'라는 비판적인 논점이 많았다. 필자 자신도 글로벌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의 맹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도 있다.

본래 종교나 학문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학도 불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전술한 바 있듯이, 불교의 기본적인 사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만족=종족/욕구'라는 방정식이 있다. 이 식에 따르면 행복한 인생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도출된다.

하나는 분자의 '종족'을 크게 하는 것이다.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만족은 높아진다. 또 하나는 분모의 욕구를 작게 하는 것이다. 갖고 싶다고 하는 욕구 자체를 줄인다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苦)으로 생노병사 4가지를 들고, 중도정신 즉 팔정도(八正道)를 실천 수행함으로써 괴로움을 걷는 현재(此岸)를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彼岸)로 건널 수 있다고 했다.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 사람을 부처(佛)라 부른다. 불교는 괴로움의 원천인 번뇌 집착을 가진 더러워진 마음에서 벗어나므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불교는 괴로움을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이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병의 고통은 '더욱 살고 싶다' '병이 알립다' '어쩌서 나만 이 지경이 됐는가' 하고 한탄하는 마음(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가르친다.

'병'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선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의 불자 작가 이즈미 히로유키(五木寛之)는 그의 저서 <큰 강을 한 방울(大河一滴)>에서 '인간의 생명은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 속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한 방울의 물은 강을 따라 흘러내려 바다가 되고,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빗방울이 되어 다시 강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대자연의 섭리에 스스로를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몸이 살아 있는 것은 아니고, 위대한 자연의 섭리에 의해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살고 싶다'고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해 변하지 않는 괴로움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음(死)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의 지위나 빈부 차이에 관계 없이 느낀다. 늙고 병들어 죽을 공포에 직면했을 때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구원해 준다.

부처님오신날 같은 불교 4대 명절이나 사찰 행사에 참가해 보면 연로자의 참석률이 압도적이다. 젊

은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현실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인생을 살아 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는 안 된다. 늙은 몸이 돼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데,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석가여래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된다.

경제학은 어떻게? 경제학은 지나친 소비의 절제와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유한한 물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실현하는 것이 경쟁시장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완전경쟁'이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의 낭비를 허용하지 않는다.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계기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완전경쟁의 시장경제에서는 필요한 것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장을 확대한다면 만들어지는 상품의 수도 늘어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쉽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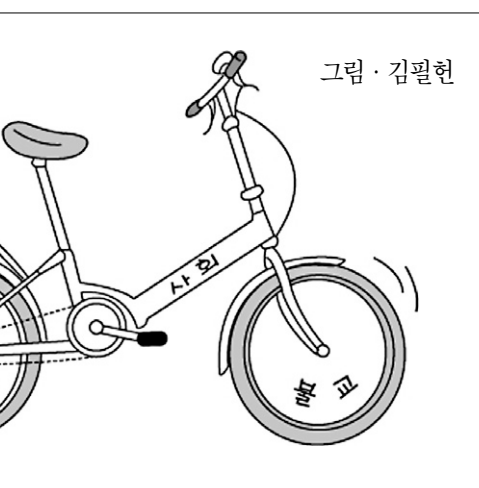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다.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의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후생도 높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학은 번뇌의 세계에서 경제활동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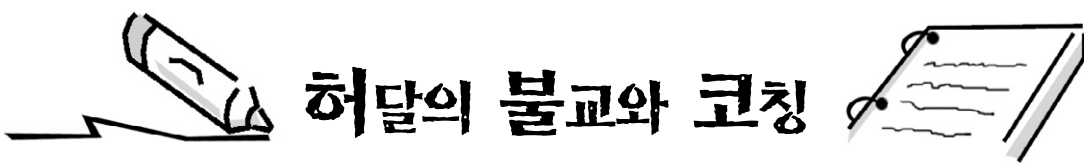
경제학과 불교는 삶에 필요한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결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비유한다면, 경제학은 자전거의 뒷바퀴와 같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동기부여)는 문명사회를 진전시켜 물질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뒷바퀴만으로 자전거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앞바퀴의 역할을 하는 불교가 필요하다. 앞바퀴는 자전거의 행선지를 컨트롤하고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확한 각도로 체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불교와 경제학은 고도의 논리성으로 감정의 기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은 고통에 직면하면 분노나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에 지배받게 된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하면 누구나 사고를 일으킨 상대에 대해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엄벌에 처하거나 상대가 어떤 방법으로 사죄해온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지는 않는다. 끝내 아픈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밖에 없다. 불교가 가르쳐주는 고통으로부터의 해탈법은 매우 논리적이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에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버스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길을 잘 안내해주는 것은 왜 그런가?' 라고 질문 받았을 때 경제학에서는 '버스 운전자는 성급해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답을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감정의 기록을 조절한다.

어느 사찰 주지스님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법문을 듣고 귀가하던 사람이 차에서 발을 밟았다. 보통이라면 불속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때, 왜 상대방의 발이 자신의 발과 겹쳐지고 있는 지부터 생각해 화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부처님은 못 중생에게 감정에 따른 삶이 아닌, 이성과 논리 · 합리에 따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 인동대 경제학과 교수

35) 검려 <광>



이번 글이 연재를 끝마치는 글이 될 것 같아, 어제 오늘에 걸쳐 지나간 글들을 모두 한번 읽어 보았다.

지난 해 6월 10일부터 35번째의 글이 된다. 살펴보니 몇 차례는 불자 여러분께 리더십과 코칭에 대한 지식을 중언부언 전달한 셈이 되었고, 중간 몇 편은 코치의 마음가짐, 코칭의 기술적 측면, 코칭의 작동기제(作動機制) 등이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소회가 있어, 그동안 경험한 코칭의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적어본 셈이 되었다. 또 '코칭도 불법도 그 이음을 좀 떠나면 어떠랴'라는 내용의 글을 쓴 뒤에는 스스로 글쓰기의 부담이 좀 가벼워져서 몇 편은 여행기, 소묘(素描), 수상(隨想) 형식을 빌려 과거부터 지니고 있던 잡문들을 끌어다 쓰거나 자기표절을 해 구성한 것도 있었다. 올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으나 다시 읽어 보니 부끄러운 바 없지 않다. 마치 술에 취해 왕회지 보란 듯이 일필휘지 써내린 난정서(蘭亭序) 한 줄을 맨 정신에 다시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불교와 코칭'이란 주제부터 버거웠는데, 결국 리더십, 코칭에 익숙지 않은 불자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리더십과 코칭의 지식을, 불교에 익숙지 않은 코칭 업계 분들에게는 여기저기서 어께 너머로 들어 얻은 불교에 대한 일문일답을 이리저리 벌여놓아

도회(翰海)한 꼴이 되었으니 눈 밝은 이가 보면 여복하겠는가? 게으른 자의 겉걸기 싫이었으니, 남과 나눌 것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다만, 이 글들을 통해 내가 자처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나는 그 역할의 사명을 맡을 자격이 있었을까? 글쓰기를 맡기 전에 해야 할 질문을 한 박자 늦게 자문하면서 늦었지만 좀처럼 얻기 어려운 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받은 행운이라 하겠다.

15년 전쯤의 일이다. 현천서실에 자주 들르던 원로시인 민영(閔映)씨가 나를 서실 구성으로 가만히 부르더니, 손바닥만한 책을 한 권 주셨다. 1948년 을유문화사에서 출간한 작고 화가이자 수필가인 김용준의 글 모음 <근원수필(近源隨筆)>을 당신이 발문해 재발간한 범우문고의 문고판 서적이었다. 김용준은 자신을

원숭이나 노새와 다름없다고 비하하여 근원(近猿, 검려(黔驢)) 등으로 자칭했다. 나중 그 글을 따서 근원(近猿)이라 호를 정했다고 한다. 책을 읽어보니 서화(書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애정, 거속(去俗)한 예술가의 삶을 유려한 필자로 써낸 향기 높은 수필집인데, 자신을 검려라 칭한 소회는 아래와 같았다.

"중국 검주(黔州)라는 땅에는 호랑이는 있으나 나귀는 없었는데, 어느 날 장사꾼 하나가 나귀 한 마리를 끌어서 산 밑에 매어두었다. 호랑이라는 놈이 하루는 내려와보니 생긴 것도 보도 못한 이상한 동물이 딱 버티고 있는데, 거무튀튀한 놈이 커다란 눈깔을 꺾벼거리며 섰다가 소리를 냈다 지르는 꼴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보였던지 걸음이 날 살려라 도망을 갔다. 그러고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귀란 놈, 시시때때로 소리를 질러대고 시원찮은 발길질을 선보이니 호랑이가 가만히 보아

하니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다 여겨 이리저리 다루어 보고 마침내는 물어뜯어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김용준이 자신이 그림 그리는 일, 수필 쓰는 일을 어디선가 멈추지 못하고 마침내 못한 재주를 다 드러내어 세인의 비웃음을 샀다고 겸양하는 말을 나귀의 어리석은 발길질에 비유해 자신을 검려라 칭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지하철에서 무심코 눈 닿는 곳에 붙은 글들을 읽곤 하는데, 최근에 읽은 것 중 기억에 남은 글은 오케스트라의 명 지휘자 번스타인의 말이였다. 누군가 번스타인에게 물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어려운 악기는 어떤 것인가요?"

"제2바이올린이지요." 번스타인이 주저 없이 대답했다. "제2 바이올린을 제1바이올린과 같은 열정을 갖고 연주하는 연주자를 찾기 어렵거든요."

자, 이제 어리석은 나귀의 발길질 같은 글쓰기를 마친다. 그러나 못난 재주이고, 제2바이올린의 역할이었을 망정, 제1바이올린 주자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았었다면, 그런 자부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살의 길도, 코치의 길도, 또 어쩌다 잠시 반연된 잡문 쓰는 일도 무슨 분별이 있어 제1·제2를 나눌 것인가? 다만 서산대사께서 선가귀감에서 경제하신 법, 빈 수레를 한갓 말재주로 질감하여, 번소에 단청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적이 두려울 뿐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 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0년 3월 8일 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사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교 예술 대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0년 3월 9일 화요일

제천 금강사 기로원 입소자 모집

실버타운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채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방 규 모 : 원룸형 8평 18실 (방1개, 베란다, 욕실)

◇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 입소비용 : 평생 거주 5,0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으로 문의 바랍니다.